

장애인 재활과 기독교적 소명*

박혜전(고신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교수)¹⁾

조영길(고신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교수)

논문초록

이 논문은 장애인 재활에서의 기독교적 소명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한 하나의 연구이다. 재활에 대한 이해와 성경에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을 향한 복음에서의 재활의 영향을 밝히고, 재활의 기독교적 소명이 무엇인가를 조명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곳이다. 하나님이 다스릴 그 나라는 장애가 결코 장애되지 않는 곳이다. 우리의 학문과 믿음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현장으로 걸어가야 한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장애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며,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깊이 깨달으며,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공동선 추구 및 인권회복으로 우리의 관심이 돌려져야 한다. 하나님은 장애인을 결코 불쌍한 존재로만 보시지 않으셨다. 영혼구원의 대상으로 보셨고, 장애극복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 복음 사역자로 감당케 하신다. 우리는 크고 작게 모두 고통을 지니고 살아간다. 그러한 면에서 그 누구도 신체·심리적 장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장애의 의미를 생각해보며 특별히 기도라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심리·사회적 재활과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는 하나님 나라 실현의 완성이자 재활의 기독교적 소명이 완성되는 것이다.

주제어: 장애인, 재활, 기독교적 소명, 사회참여, 인권회복

2009년 10월 30일 접수; 11월 25일 수정; 12월 12일 게재확정.

* 이 논문은 2009년도 기독교 학문 연구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을 기초로 했음.

1) 제 1저자

| |
|---------------------|
| I. 서론 |
| II. 재활에 대한 이해 |
| III. 성경에서의 장애인 |
| IV. 장애인 재활의 기독교적 소명 |
| V. 결론 |

I. 서론

많은 기독교인들은 모든 삶의 창조주이시며, 운행자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장애라는 부분을 심각하게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애를 특별히 다루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쁨과 승리 안에 우리와 더불어 계심과 같이 장애라는 인생의 역경 안에서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욕구와, 공포와, 근심과 희망들을 알고 계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도덕적 형태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되고 존경을 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결정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설명되어야 한다. 정치면에서 정부는 그 사회구성원에 대하여 생명, 생활, 노동의 기회를 보장할 의무를 가지며, 이 때 유기체적 사회선과 인격으로서의 개인선을 조화시키는 사회질서가 필요하게 된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가치, 사회정의의 실현에서도 장애인 재활이 중요한 역할을 점하고 있다.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사회구성원은 모두 공동선의 조성을 위한 응분의 사회적 기능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지니며, 동시에 공동선을 부여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엄하고 동등한 삶에 대

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즉 그들은 시민으로서 사회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삶에 대한 능력을 키워야 하고 꼭 필요한 도움에 대한 욕구도 가진다. 이것은 재활의 철학이자 이념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재활 철학적 관점과 기독교적 관점에서 장애에 관한 문제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먼저 재활의 이념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들을 예로 들고, 성경속의 장애인 재활의 모습과 재활이 장애인의 삶에 어떻게 관여 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재활철학이 곧 인간의 인권회복이라는 인간 존엄성을 그 기저에 두고 있으며,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으로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II. 재활에 대한 이해

1. 장애의 정의

2008년 9월 25일에 개정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미국의 장애인관련 법의 2008년 개정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mendments Act of 2008)에 따르면 '장애'라는 용어는 개인의 주된 사회 활동 중의 하나 이상을 실제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라고 법률적 정의를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따르면 손상 혹은 상실(impairment)은 심리학, 생리학, 해부학적 구조 또는 기능의 변형 또는 상실이라고 정의하고, 장애(disability)는, 손상 혹은 상실(impairment)의 결과로 초래되는, 한 인간에게서 통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활동을 실행할 능력의 상실 또는 제한이라고 정의하며, 불이익 혹은 사회적 불리한 조건(Handicap)은 손상 혹은 상

실(Impairment)나 장애(Disability)로 인해서 개인이 나이, 성별, 사회 문화적인 요소에 따라서 그에게 통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역할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회적 불이익이라 정의한다(Arne Fritzon & Samuel Kabue, 2004; 최순진, 2009: 54에서 재인용). 이러한 장애의 개념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개인과 환경의 상호맥락적 요소가 점차 더 강해지고 있다.

2. 장애를 해석하는 모델

일반적으로 장애는 두 가지 현상을 가지고 논의한다. 장애현상을 이해하려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까지는 의료·보건증상과 증후군에 초점을 두는 건강상의 접근(individual model)과 사회적 권리의 확립과 같은 사회기능상의 접근(social model)에 초점을 두는 두 가지 방식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특히, 재활의 관점에서는 장애개념을 개인의 능력과 기능수준에 제한을 가하는 손상과 관련된 하나의 행동경향(a pattern of behavior)으로 다루기도 한다(Nagi, 1969). 이 경우 정신적 신체적 손상상태(impairments)가 항상 장애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동일하다고 간주되는 손상이라고 하더라도 상이한 장애정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장애는 개념상 구분된다. 장애가 신체질환이나 질병과 개념적으로 구분되듯이 손상의 크기도 병리학적 상태와는 구분할 수 있다.

개별적 모형(individual model)에서 재활과 치료의 목적은 장애인을 정상화(normalization)시키는 것이다. 제한된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장애인들의 삶에 개입과 강요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에 반해 변해야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바로 사회며, 이런 변화는 장애인들의 정치적인 권한부여 과정 중 일부인 것으로 사회적 모형(social model)의 핵심이다. 장애의 사회적 모형은 신체의 차이와 제한은 전적으로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체경험을 부정하는 경향에 특징이 있다. 장애의 사회적 모형은 장애형태가 무엇이

든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개인의 제한성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장애인의 욕구를 사회조직 내에서 적절하게 해결 해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레나르드 데이비스(Lenaard Davis, 2002: 41)는 장애(impairment)와 무능(disability)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장애는 시력, 청력, 기동력, 정신력 등의 상실 내지는 저하와 관련되지만 주변의 사회가 정서적, 감각적, 인지적 혹은 건축적 장애환경을 만들 때 그 장애(impairment)는 무능(disability)이 된다.

도널드 시니어(Donald Senior, 1995: 5)는 장애인에 관하여 생기는 문제들, 예를 들어, 두려움, 무지, 보호, 편견 등은 단순히 불편의 문제나 둔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장애인이 자신의 공동체에 참여해야 할 권리아말로 정의(justice)에 관련된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 그는 정의(justice)의 개념을 '공동체에서 공평과 조화를 조장하는 상황과 환경을 회복하는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의 권익은 개인의 형편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고 조화 있는 사회를 만들어 누구라도 장애로 인해 차별 받거나 존엄성이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미첼과 샤론 스나이더(David & Sharon, 2007: 183)는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은 장애를 '존재론적 경험의 범주(ontological category of experience)에서 이해하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장애인이라는 별개의 범주나 나름대로의 공동체가 생겨서는 안 된다. 장애인을 위한 기관, 장애인을 위한 학교,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을 위한 병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따로 두어서는 안 된다. 물론 전문인을 키우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는 것처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기관은 필요하지만 주류 사회에서 벗어나 계토(ghetto)화된 의미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은 결코 다른 종류의 존재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배려를

한다고 해서 다른 종류의 존재로 보면서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다.

물론 장애인의 문제를 오직 사회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개인적 자존감이나 열등의식 문제도 다루어야 하며 또한 의학적 차원과 윤리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장애인을 향한 잘못된 인식들이 기정사실화 된 상태에서는 어떤 접근도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장애인의 존엄성과 동등성을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게 된다(정승원, 2009).

3. 장애에 대한 태도

장애를 가진 사람은 종종 '다르다'는 것으로서 부정적 평가를 가진 열등한 사회적 위치에 강제되어지고 대다수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 장애인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장애 그 자체에서 일어 난다기 보다는 장애의 심리사회적 혹은 사회심리적인 파생물들로부터 일어나며 (McGowan & Potter, 1967), 이러한 장애문제를 고려할 때 환경을 따로 떼 내어 다룰 수 없다. 장애인(handicapped people)이란 용어는 자연적 혹은 객관적인 조건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창조된 것이다. 장애차별(handicapism)은 인종차별, 성차별과 유사하며, 신체적, 정신적 혹은 행동적 차이로 인해 차별과 불평등을 촉진시키는 일련의 과정들과 실제들의 집합체이다.

장애의 신체심리적(somatopsychological)영향은 장애인의 동기화(motivation) 및 재활수단에 대한 장애인의 반응에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은 자아개념의 변화뿐만 아니라 장애의 평가 절하된 사회적 영향과 심각하게 투쟁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는 그동안 소수집단 관점(minority-group perspective)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남 캘리포니아 대학 정치학 교수인 한(Hahn, 1986: 45)은 장애는 개인과 환경사이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규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수집단 관점은 장애인이 직면하는 어려

움은 크게 개인적 결핍이나 결함보다는 오히려 장애를 조성하는 환경(disabling environment)의 결과로 간주한다. 장애라는 인간 다양성을 실제적인 현상이나 사실적 진실에 근거하여 판단하기보다는 편견이나 일반화된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도 종종 동반자가 아니라 연구, 치료, 간호, 보살핌의 대상으로 여긴다. 장애인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면만이 일반적으로 부각되어 총체적 인간의 모습은 잊혀지고 있다. 이처럼 장애의 불이익 조건은 의료적(개별적)인 성격보다는 대부분 사회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여겨진다.

장애인들에 대한 종속적 역할의 강조,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부정적 낙인과 차별을 통해 장애인을 장애를 지니지 않은 사람과 구별하는 것은 장애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탐구와 올바른 이해 없이는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기 어렵다.

4. 재활 철학 및 이념

사회는 어떤 종류의 집단의 사람들은 도달하지 못하는 기준을 정하고 한 개인이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그 개인을 다르게 또는 무능하게 아니면 남보다 못하게 취급한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바꾸지 않고도 단순히 사회환경을 바꾸어 놓았을 때 그 사회의 반응이 사람들을 다르게 취급하고 흔히 장애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1) 재활의 개념 및 원칙

라틴어 *habilitas* 또는 *habilitare*에서 기원된 용어로 적합하게 만들다,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심신의 장애인이 신체적 기능을 재통합하여 사회로 복귀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와 직업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도모하는 과정으로 재활(*Rehabilitation*)은 ① 일단 잃었던 상태를 회복하다(복권), ② 오명을

씻고 땀뻘한 몸이 되다(명예회복), ③ 장애인이 사회에 복귀하다(사회복귀)를 의미한다. 재활은 단순한 치료나 훈련 등의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고 심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이 인간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종합적인 서비스 즉,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및 직업적으로 정상생활이 영위되도록 그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의료훈련 및 장애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및 경제적 최고수준의 유용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재활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재활이란 단편적이 아니고 전인적인 개념이다. 둘째, 재활이란 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신뢰이다. 셋째, 재활이란 인간효용성과 적응성을 길러주는 것이다. 넷째, 재활이란 인도주의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다섯째, 재활이란 자기실현을 위한 동기완성을 전제로 한다. 여섯째, 재활이란 인간을 만족하고 생산적 생활에 이르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재활은 '의료적, 신체적, 심리사회적, 직업적 중재를 제공하여 장애인에게 개인적 성취감과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게 하고 세상과 기능적,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얻도록 하기 위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프로그램이다'라고 정의되어졌다(Banja, 1990).

재활의 기본이념은 인간의 가치실현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재활 원칙을 들 수 있다.

(1) 인권의 존중:

장애인의 자유와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평등을 말한다. 장애인의 권리선언에 있어서도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고 같은 나이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생명의 존중:

장애인의 재활은 인간 생명존중의 자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떤 상태에 처한 사람이라도 다른 어떤 것보다 대치가 허용되지 않는 존재로서 존귀한 가

치가 있으며 삶의 권리에 있어서도 경중이 있을 수 없음을 말한다.

(3) 공평성의 존중:

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가 편견이나 차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다. 기회균등이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서 취업과 함께 비장애인으로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로의 참여를 준비하게끔 한다.

(4) 사회통합의 원칙: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한다는 정상화나 건강한 사람 속에 통합적으로 처우한다는 통합회는 현대 장애인 재활의 이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5) 전인격의 존중:

장애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닌 신체의 일부이며 건전한 사람의 한부분에 더해진 하나의 특징으로서 받아들여진다. 인간은 전인격적 존재이다. 인간은 하나의 완전한 개인이며, 개개의 각 부분이 전체를 형성하는 다른 부분과 상호작용 한다.

오늘날 재활 철학의 연구는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옹호와 신념의 오랜 역사를 나타낸다. 40년 이전 Talbot는 재활을 내담자 개인 능력의 자기의식과 성취에서 삶의 기초가 되는 방법으로써 언급했다. 30여년 이전 비터(Bitter, 1970)는 '미국에서 실시되는 재활을 위한 철학적 기초 형태로 기회균등과 전인격을 말했으며 개인의 독특성을 언급했다. 1959년 이래 라이트(Wright, 1959, 1972, 1983)는 재활 철학을 뒷받침하는 기초적 가치와 신념의 목록을 갱신했다.

재활 철학은 다양한 생각과 재활 서비스전달 모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첫 번째는 무배제(zero-exclusion)의 개념 즉, 어느 누구든 서비스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며 장애의 경중함을 개의치 않는 것을 의미한다(Laski, 1985). 두 번째는 재활의 생태학적 모델로서, 즉 이것은 개인에게서 환경의 충격을 인지하고 환경수정의 중요성을 말한다(Szymanski & Parker,

1989). 셋째 고용후서비스와 지원고용(Wehman,1988), 넷째 옹호, 다섯째 권한부여(Nosek, 1988), 여섯째 선택(Curl & Sheldon, 1992), 일곱째 장애인들이 그들 자신의 흥미를 가장 잘 판단하고, 그들 지역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생활에서 완전참여의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을 인지한다(Dejong, 1979).

2) 재활의 영역

재활은 신체적·정신적인 질환을 의학적 치료는 물론 기능적인 회복과 심리적이며 사회적이고 또한 직업적인 면까지의 회복을 포함시켜 사회인으로서 인간 또는 총체적 인간(human as a whole)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다. 재활은 사람답게 될 권리와 자격과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며 질병이나 사고 등에 의한 기능저하를 기능발달(rehabilitation)로 이끄는 것이다(진용호, 2000).

(1) 의료재활

의료적 재활은 장애인 재활의 첫 단계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분야로 질병이나 장기만을 치료의 대상으로 하던 의학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으로서 장애의 발생과 동시에 시작되며 치료와 병행하여 진전되어야 한다. 의료재활 서비스는 장애의 예방, 장애의 조기발견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각종 재활치료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측면에서의 회복을 꾀하는 포괄적인 서비스이다.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의료재활이란 장애극복을 위한 첫 단계라 할 수 있으며,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의료재활 서비스의 목적은 신체적 장애의 예방, 신체적 장애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며 장애인이 지닌 장애에 대한 정신적·심리적 측면에서의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신체적 기능을 최대한으로 회복시켜 보다 생산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심리·사회적 재활

심리적 재활은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 및 주위 사람들의 욕구, 정서, 관심, 가치관, 태도 등 재활과정 중에 가지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접근으로서 심리적 향상과 협조를 도모한다. 심리적 재활은 재활과정의 각 영역에 중요한 공통적 분야이다. 사회적 재활은 장애인이 사회재활이나 가정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원조를 말한다.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주위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포함한다.

(3) 교육재활

교육과 재활은 인간 사회 속에서 기회의 균등을 확립하는 데 있어 핵심요소이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교육을 통해 사람들은 더욱 더 생산적으로 될 것이고 지식, 적절한 가치들과 행동들을 가르친다.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잠재능력인 가능성을 개발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직업재활

오늘날 의료 및 재활공학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과거 고용을 생각할 수 없었던 중증장애인들의 독립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것은 구체적 소득 활동과 연결될 수 있다. 인간은 직업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삶의 기쁨과 만족이 있는 소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장애인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유지 및 확보에 있다고 한다면,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로서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직업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재활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disability)는 어떤 개인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신체적 기능을 의미하는 반면에 사회적 장애(handicap)는 재활서비스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유용성과 환경이 부과하는 장벽들의 정도에 따라 규정된다(Rubin & Roessler, 1995).

전통적 재활 패러다임은 문제의 원인을 개인이 지닌 일상생활 능력의 부적절성에서 파악하려 하거나 고용을 획득하기에 부적절한 준비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에 문제는 개인의 내부에 있다고 전제되기 때문에 개인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재활전문가인 물리치료사, 직업재활(상담)사, 작업치료사, 재활전문가들의 충고와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르도록 요구된다. 이 때 장애인에게는 환자 혹은 내담자 역할(sick role)이 부여되고 재활과정의 목표는 개인의 신체적 기능 극대화나 고용이 되며, 따라서 재활 성공여부는 크게 장애인이 미리 계획된 치료과정을 얼마나 순응하며 잘 따르느냐 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독립생활 패러다임은 문제를 개인의 신체에 맞추기 보다는 종종 전문가와 장애인간의 관계나 환자와 의사 관계와 같은 의존성 유발 관계들을 해결하는 재활 패러다임 속에서 찾는다. 따라서 재활은 문제해결 보다는 문제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문제의 소재는 개인에게서가 아니라 사회전체로서의 사회적 통제기제와 물리적 환경 및 재활과정 속에서 찾아진다. 이러한 환경적 장벽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애인은 환자나 내담자의 역할을 벗어버리고 소비자의 역할을 회복하여야 하며, 독립생활의 주된 패러다임이 되는 소비자 통제, 자조, 동료상담, 권익옹호, 환경개선과 같은 노력들을 하도록 요구된다.

사회통합 (social integration)이라는 재활패러다임은 최근에는 다시 포함

(inclusion)의 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통합의 구체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사회통합은 개인의 능력, 개인의 독자성, 개인과 사회적인 평등(능력과 기회의 인정) 등을 포함하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언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절히 활동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개인이 사회통합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셋째, 또 사회통합에 필요한 개인적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적인 능력의 개발이나 재평가 ② 개인적 독자성과 공공 정체감 ③ 자기 해방 (liberation) ④ 사회적 해방 ⑤ 사회적 평가와 적응 등이다.

III. 성경에서의 장애인

성경에서는 장애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는 흔히 장애를 하나님의 죄의 결과로써 쉽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애 자체에 초점을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장애는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하나의 은유적 표현으로 소개되며(함택, 2009), 제레미 스키피(Jeremy Schipper, 2007: 109)는 장애 자체에 초점이 두어지기 보다는 나라 혹은 사회 주도권 싸움에서의 승리와 지도력을 사실적이지만 상징적인 의미의 장애를 내세워 역으로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사무엘하 3:1).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사무엘하 4:1).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절뚝발이'라고 기록되어 있다(사무엘

하 4:4).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던진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사무엘하 5:6).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사무엘하 5:8)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사무엘하 6:23).

이처럼 제레미 스키피의 주장은 성경에서 개인적인 장애를 일반적으로 비하하거나 폄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또한 장애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때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닌 것이 된다. 삼손은 두 눈을 잃은 시각장애인이었지만 블레셋 사람을 멸절시켰다(삿 16:30). 이삭은 노년에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대족장으로써 공동체를 이끄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또한 야곱, 아히야(왕상 14:4), 사도 바울 역시 시각장애인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갈 4:15, 고후 12:7). 이와 같이 만약 개인적 장애 자체가 문제였고 장애인인 사회에서 아무 쓸모없고 퇴출될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삭, 야곱, 삼손, 아히야의 장애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성경에서 장애를 비하하는 기록이 있다 해도 그에 따른 상징적 의미나 예표적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장애를 가진 자의 인격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는 장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절을 남겨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레위기 19:14).

한편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의 예언으로 유명하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이사야 53:4)라는 구절이 있지만, '질고'란 죄의 상징이라는 전승이 유대인 사이에 퍼져 있었던 것 같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치셨을 때,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의 이 말이 성취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마태복음 8:17).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기간 동안 많은 병자나 장애인을 고치셨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는 육체의 질병 이상으로 중요한 진리,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전 인류가 범한 죄(영적인 병을 가리킨다)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나타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리하여 구약 중에 있는 장애인의 상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래의 자녀로서의 입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자들을 분리하여 낙인을 찍고 추방하거나 격리시키거나 하는 태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의 또 다른 예언을 보면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될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이사야 35:5-6)'라고 한다. 사실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어디에서나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뛰게 되고, 문둥이는 깨끗함을 받고, 굶주린 자는 복음을 듣게 되었다. 더욱이 예수님은 위대한 자에게만 받드심을 받을 분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경멸당하고 완전히 무시당해 왔던 사람들, 특히 장애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체에 손을 대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들을 소외시키고 있던 사회에 다시 한 번 '인간'으로서 복귀시키신다.

현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통합(inclusion)'이라는 것을 강하게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밑바닥에 아직도 '편견'과 '차별'의 사상이 깔려 있다. 분명 장애인의 인권을 문제 삼고 그 복지 증진에 적극적으로 손을 펼친 기독교의 공적은 크지만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교회는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고, 장애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편의시설, 수화통역 등)들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도 그 동안의 장애인 재활에 대한 신학적 접근의 결핍과 기독교인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의 결핍으

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1.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 장애인들

1) 하나님을 찬송하는 레아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창세기 29:17)

레아는 요즈음으로 말하자면 약시(弱視)라 할 수 있다. 그녀는 야곱의 아내 중 한 사람이었으나 남편이 자기를 멀리하고 사랑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고 남몰래 서러움과 고독에 번민했을 것이다. 장애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데, 거기다 정신적, 사회적 고통까지 가해진다면 그는 한층 더 궁지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아의 어두운 인생길에 빛이 비추어졌다. 그녀의 갈 길은 캄캄하고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와 닿은 것이다(31절).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야곱에게서 계속해서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레아는 유다를 낳았을 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창세기 29:35)라고 말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삶의 고백으로 주신 은총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전까지 오로지 남편과 라헬에 로만 마음이 쏠려 있었으나 이제 레아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레아가 깊어져야 했던 장애의 고통은 현대의 장애인들의 고통이기도 하다. 그 첫째는 눈이 약했기 때문에 사람들로 부터 사랑이나 기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며, 둘째는 레아에게서의 무거운 짐은 또 한 사람의 아내인 라헬과 계속 비교당하는 일이었다. 이것은 가정에서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비교함으로써 도전해 온다(나이토 토시히로, 1989).

그럼 장애인인 이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인간이 다른 사람과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귀함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각함으로써 장애인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레아의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면적 생활이 확립되었을 때 남편과 자신과의 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실마리가 주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때 태어난 아들 유다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자만한 라헬에게서가 아니라, 나약함과 고통을 알고 있는 레아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바울의 고백을 떠올린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고린도후서 12:9)

이 외에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 장애인으로 야곱, 나아만, 욥 등을 들 수 있다. 야곱의 경우에는 '저를 축복해 주실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습은 장애인 재활영역 중 심리적 재활의 적용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의 동기와 의지를 촉진시켜 그로 인해 스스로의 삶에 대한 열정을 지니게 하는 재활의 심리·사회적 영역을 주의 깊게 짚어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문둥병자 나아만의 경우에는 철저히 자신의 지위를 부인하는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고침을 받고 새롭게 변화된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것을 고백한다. 성경은 언제나 인간의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병 고침을 위한 고침도 아니고, 이적을 위한 이적도 아니다. 그 병 고침을 통하여 모든 것이 주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데 핵심이 있는 것이다. 나아만에게서 깨닫게 되는 영적의미는 그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보다도 어떻게 하여 그의 교만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욥의 경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다. 우리 중에는 욥과 같은 병을

안고 가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 사람들의 선의를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얼어버린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고난은 사람을 편벽하게도 하지만 성장의 수단, 훈련의 화로로도 사용된다. 옳은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에서 해방되고 다시 자식과 재물이 풍부하게 되어 이전보다 두 배나 잘 살게 되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장애인관 조명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께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것이냐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시각장애)이 보며 앓은뱅이(지체장애)가 걸으며 문둥이(한센병)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청각장애)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마태복음 11: 4~5)고 말씀하신다.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그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한다.

예수의 정체성을 죽은 자의 살아남과 장애인의 치유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사실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죽은 자와 장애인과 가난한 자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끊쳐 지거나 소외된 대표적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수는 이런 소외된 자, 소수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 공동체로 합류시키는 데에 그 사역의 목적이 있음을 밝히신다. 물론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들을 부르신다. 이러한 점에서 소수자 입장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그래

서 소외되는 모든 영혼에게 주님을 증거 하는 것은 재활의 목표이자 철학인 동시에 기독교적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중산층 교회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과의 거리이다. 우리 공동체 속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들에게 초점이 가 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변함없는 예언자적 임무다. 숨은 빈민들을 발견하는 일은 흔히 말하되 '사회적 행동' 정도가 아니다. 이는 우리의 성경을 완전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일이다. 바로 우리 삶과 재활이라는 학문을 통해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

재활이념은 장애인에게 밖으로 나가기를 권한다. 스스로 해보고, 실수도 인정하는(error-free) 그런 삶을 권한다. 복지라는 테두리로 장애인을 두 번 묶어 두어서는 안 된다. 이제 장애인들은 그들 스스로의 삶의 권리를 찾아야 하며, 그러한 권리는 인권이라는 차원을 뛰어 넘어 하나님의 귀한 생명으로서의 자존의 권리가 회복되어야만 한다. 그들을 보호하고 동정함으로서 그들의 능력을 안으로 안으로만 가두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우리와 같이 사회 속에서 동등하게 생활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장애인들이 지니고 있는 개개인의 능력을 무시해서는 되지 않는다. 누가 자신의 삶을 타인에 의해 조정받기를 원하는가? 장애인의 삶에서도 그러하다. 하나님이 이루실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장애인 재활의 중요도와 그 가치를 물어보아야 하며, 그것이 가장 소외된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신 사람들, 곧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묻는 심판이 될 것이다.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소수계층의 사람들 즉, 장애인들의 삶이 언제니는 아니지만 빈곤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가난이라는 것이 '정치'의 이슈가 아니라 영적이며 종교적인 이슈라

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의 모든 부문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 전 세계의 현장에서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는 재활 프로그램들의 실례를 연구하고 그 접근법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장애인들의 삶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고, 그런 삶을 위한 일련의 재활 서비스를 통한 최상의 노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장애인 삶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장애인은 더 이상 시혜의 대상,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예수님이 앉은뱅이(지체장애)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을 때 그는 일어설 수 있었다. 재활이라는 방법을 통해 장애인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 중 하나인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과 생명에의 존엄과 그들의 권리를 위해 방법론적인 부분을 부각시켜야 한다. 일시적으로 장애인에게 관심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처럼, 그들 삶속에 주님에 대한 영적인 의미와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적인 방법 및 지원이 가슴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소외당하고 학대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적인 태도는 더 이상 예수님의 뜨거운 가슴을 다 전달하지 못함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은 장애인의 삶에 있어 이 세상의 현실을 무시하고 천국만을 가리키려는 것이 아니며 영원의 시점에서 현실의 것까지 배려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3.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재활의 재조명

1) 사회선, 사회정의 함의

1979년 12월에 국제 연합에서 채택된 '국제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의 63항에는 '어느 사회가 그 구성원 중의 몇 사람을 추려낼 경우 그것은 약하고 무력한 사회'라는 구절이 있다(UN장애인인권헌장, 1979).

지금까지의 사회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완전히 갖춘 사람들의 요구에만 응해 왔다. 그러나 사회에는 어느 시대든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있게 마련이다. 그들을 포함한 사회야말로 완전한 사회이다. 하나님의 모임 공동체에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모임 공동체가 외견상의 이유만으로 어떤 사람들을 내쫓는 듯 한 일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서 채택되어야 할 가치와 신념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공평(equity)이나 공정(fairness)의 준거가 종종 평등(equality)에 대한 논의의 초점이 되어왔다. 우리는 재활서비스의 제공으로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의 뜻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루빈과 뢰슬러(Rubin & Roessler, 1995: 130)에 의하면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은 그 구성원 모두에게 사회적 불공정을 공정화 시키고 평균적인 활동에 미치지 못하는 개인이나 능력이 부족한 구성원들을 우선 배려하는 사회여야 할 것이다. 장애를 지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철학은 모든 사람들의 평등기회 보장에 있다. 기능상의 장애를 지니는 사람들도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서 시민으로서 고유한 책임과 권리를 보장받고 고용과 사회참여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 수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억압된 소수집단 구성원으로 특징 지워지는 장애인이 하나의 인격적, 사회적 존재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활능력의 회복과 시민권적 신분보장을 위한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취업 기회 부여가 장애인 개인의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에 대한 창조적인 기여를 도울 뿐 아니라 장애인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켜 가족구성원의 생활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인 동시에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2005년도에 47,280,000명인데,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2,010,560명으로 남자 1,244,812명(63.5%) 여자 765,748(38.1%)이다. 가

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1,944,791가구로 추정되어 전체 조사대상 15,864,809명 가구의 12.3%이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005.2/4분기)의 52.1% 수준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6).

더욱이 장애라는 상황은 장애인들의 83.8%가 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인 이유로 장애를 입고 있고, 사고(21.0%)보다 질환(43.8%)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박혜진, 2003). 이처럼 장애발생은 후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문제는 이미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것이다. 결국 '장애인의 문제는 비장애인의 문제'라는 명제아래 문제의식을 날카롭게 재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

2) 전인적 재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마태복음 4:23)

예수님의 사역은 영적무지를 일깨워주시는 복음전도자시며, 영육의 치료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자들의 고침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의 삶은 병 고침을 통해 영적인 존재로 거듭남을 경험한다. 아마 그들은 그들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1) 성경에 나타난 의료적 재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성경의 예언대로 장애인 사역을 너무나 많이 펼치셨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전체에서 장애관련 구절은 총 571구절로서 4복음서 전체 구절의 15%에 달하고 있으며 신구약 성경 전체에

장애관련 구절은 총 1,317구절로 나타나고 있다(이재서, 2009). 이는 예수님이 장애인 사역을 얼마나 중요시 한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병 고치심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장애에 대한 언급이 특별히 많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실로 장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하게 하며 우리가 장애에 대한 반응과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병든 히스기야왕의 부르짖음에 선지자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무리를 시켜 상처에 바르니 나음(열왕기하 20:1-7)

사람들이 메고 올라온 앓은뱅이 된 구걸인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사도행전 3:1-16)

발을 쓰지 못하는 루스드라의 나면서 앓은뱅이 된 한 사람에게 바울이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사도행전 14:8-12)

멜기세덱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질을 바울이 안수하여 낫게 하매(사도행전 28:7-10)

십 팔년동안 귀신들린 여인을 안수하심(누가복음 13:10-13)

두소경의 눈을 만짐(마태복음 9:27-30)

소리지르는 길가에 앓은 두 소경을 불러서 눈을 만져주심(마태복음 20:14-34)

사람들이 데리고 온 소경하나를 침을 발라 안수하심(마가복음 8:22-25)

바디매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대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마가복음 10:46-52)

열병에 붙들린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꾸짖어 치료하심(누가복음 4:38-39, 마태복음 8:14-15)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니 깨끗하게 함(누가복음 5:12-13)

열 두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어

나움(누가복음 8:40-48)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온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누가복음 5:18-26)

백부장의 병들어 죽게 된 종을 이르시어 고치게 함(누가복음 7:2-10)

일곱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누가복음 8:1-3)

만성 고창병 든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냄(누가복음 14:1-6)

문둥병자 열 명이 깨끗함을 받음(누가복음 17:11-19)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귀신을 명하여 나가게 함(누가복음 4:33-37)

무덤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자 하나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여 나오라 하여 산에 있는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하심(누가복음 8:26-39)

귀신 잡힌 아이를 꾸짖으시고 보게 하여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린 후 낮게 하고 떠나가심(누가복음 9:37-43)

회당안에서 오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니 손이 회복됨(누가복음 6:6-10)

예수의 제자 한 사람이 칼로 쳐 떨어뜨린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 귀를 만져 낮게 하심(누가복음 22:47-53)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짐(사도행전 9:13-19)

어눌한 무리들이 데리고 온 자를 양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뱀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라 하시니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마가복음 7:32-37)

시몬이 병들어 누운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감(마가복음 5:24-29)

베테스다 연못가에 누운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자 중 삼십 팔년 된 병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낮고자 하느냐하고 일어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여 나움 받음(안식일)(요한복음 5:2-18)

베드로의 열병 든 장모의 손을 만져 낮게 함(마태복음 8:14-15)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마태복음 8:16-18)

(2) 성경에 나타난 심리적 재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육체),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영혼)는 말씀이 나온다. 이 성경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신체적인 부분만 허락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 신체적 장애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

또한 창세기 1장 26-27절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처음 인간 아담과 이브는 완전한 자아상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하여 자신의 모습이 깨어진 자아상으로 변화하였다. 죄로 인해 자아정체성에서 인간은 잘못된 정체성으로 변화되었다. 그 결과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은 부풀려진 자아상이고, 또 하나는 축소된 자아상이다. 부풀려진 자아상이나 축소된 자아상 모두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축소된 자아상은 특히 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자아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의 실체는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읽어보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를 인정하며, 육체, 믿음, 외모, 학력, 경제력 그대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내 모습 그대로, '나는 나다'라는 건강한 자아정체성 의식이 중요하다. 장애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건강한 정체성을 갖게 한다.

축소된 자아상은 쓸데없는 비교의식을 만들어 낮은 자존감과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장애인들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의 근원은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강화되며, 장애인이 장애로 느끼는 사회 심리적인 갈등은 장애로 인해 생긴 기능문제보다 장애인의 성공적인 재활에 더 많은 문제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의 거시적인 이론을 실현시키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신체나 정신적인 기능 한계보다도 장애인의 자아감, 동기부여 그리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심리적 요인들은 주목 되어져야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재활과정에서 심리적 재활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심리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부적응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좌절하고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심리적 지지를 할 수 있다. 재활상담을 통해 장애인이 장애를 지님으로 겪게 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한 적응을 위한 상담기술들과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거기에는 물론 영적 도움도 포함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사람으로 상품이 아닌 작품으로 만드셨다. 육체적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다. 하나님에게의 초월의 능력을 믿음은 신체적 및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치유를 가능케 하며 재활의 원동력이 된다. 또한 기도는 중요한 심리적 재활이 된다. 신앙을 지닌 장애인은 장애와 관련된 그릇된 효과들을 관리하고 장애 적응에 대한 신념으로부터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 기도는 힘의 원천이며 장애와 관련한 만성질병을 지닌 개인들의 재활을 촉진하는 자원이 된다. 기도의 잠재력에 대한 의식은 개인, 가족 그리고 종교조직 내의 맥락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Weinberg & Sebian, 1980).

(3) 성경에 나타난 직업적 재활

열왕기하 7:3-10에는 한센병 장애인이 일을 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 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어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별이 우리에게 미칠찌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비록 성 밖에서 살았지만 결정적인 정보를 나라를 위해 왕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다. 구약성경에서 장애인이 구체적으로 일을 한 경우이다.

재활은 장애인의 독립을 촉진시키는 자치성에 목적을 두는 반면, 많은 공공 장애정책들은 수혜성을 중요시하는 복지적인 측면을 띤다. 사회복지와 재활이라는 두 종류의 공공 장애정책이 모두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장애정책은 수혜성 지향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많은 장애인들이 만족할 만한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예시하도록 하며 의존성을 강화시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이 사회 속으로 통합되거나 완전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의 속담처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재활의 접근방법에 가깝다.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는 모든 종류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평범한 일자리 하나를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평등, 독립, 자유를 보장해 주는 바람직한 길이 된다. 재활은 대상자의 자유를 우선적 가치로 고려하는 경향을 지닌다.

장애인의 재활은 전통적 재활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재활 공학적 접근과 함께 치료 지향적 혹은 직업 지향적으로 응용하는 다학문적인 협력인 팀 접근방식(team-approach)을 이용하는 인간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과학적인 영역으로 발전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의 이동은 직업에 필요한 신체적 중요도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인의 만성적인 장애조

건이 매우 심한 경우에도 환경적 조건의 변화나 재활공학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의 산업경향은 자동화와 기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극심한 육체노동을 배제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직업은 대부분 육체적인 활동에 치중되어 있었다. 21세기 현대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 과학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예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곳에 장애인의 고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육체적인 노동만이 아니라 영적 동기부여 강사나 IT계열의 직종, 서비스직으로의 노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예전에 생각할 수 없던 곳에서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IV. 장애인 재활의 기독교적 소명

구약성경에서는 장애인을 낙인, 차별, 동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거기에는 많은 은유와 비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 그렇다할 지라도 신약에서는 재활마인드로 접근하고 있음이 분명한 차이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활철학은 모든 영혼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소수자 입장에 처한 장애인에 대한 사역이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약한 자를 들어 주의 복음 사역을 전파하도록 치유하여 증거를 보여 주고 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맹인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나가라!’(요한복음 9:12)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나니
 위하여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5)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려 함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
 어 나의 약함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
 로 내게 베풀게 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12:9)’

사람들은 가끔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것에 동정, 관용을 베풀기도 한다. 공허히 여기고 안타까워 할 수 있으나 결코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육체가 있을 때 우리를 부르셨고 일정한 시간의 육체를 주셨다.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삶에 있어 고통이나 근심이 있으나 이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죽은 자에게는 복음이 더 이상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육체를 벗어나서는 구원은 없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가장 귀한 육체를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육체는 한 번 밖이며 그래서 중하게 여겨야 한다. 하나님이 육체를 통해 인생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히 여겨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의 무궁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심이 곧 우리 인간에게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장애를 지닌 육체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예외가 아님을 많은 성경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모든 것이 귀하며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에서처럼 '세월을 아끼라' 한정된 이 땅에서의 시간동안에 자신의 효용가치를 높여 은혜로운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나님은 공평한 은혜를 주셨다. 육체는 장애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이것이 은혜이다.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를 깨달아야 한다. 그를 위해 장애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성전 미문가에 앉아 있는 앉은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다.

영육의 치료를 통하여 주의 복음 증인으로 사용하신다. 그 앓은뱅이(지체 장애)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대부분 나의 생각, 나의 관념, 나의 사고,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삶에서 철저한 자기부인의 삶이 시작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사지마비로 장애가 된 뒤 장애를 극복하고 존스홉킨스병원 재활의학 전문의사가 된 이승복, 강영우 등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들이 장애인이었다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그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다음은 이승복(2005)의 고백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금메달이나 올림픽 트로피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시고자 부르셨고,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각자의 꿈을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기능을 인간의 몸에 비유해서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고린도전서 12:22)라고 적고 있다.

모두가 잘 산다고 생각하고 풍요로움을 느낄 때 상대적으로 빈곤함을 느끼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고 살피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 의식일 것이다. 이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사회, 함께 나눌려는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복지국가, 복지사회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동료나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복지국가를 만들고 장애인 복지를 구현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대한 시설을 만드는 외형적

인 모습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그들이 사회 속에서 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스스로 나서서 찾는 자세가 필요한 기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V. 결론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장애인의 문제를 재활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재활 철학과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 사랑은 재활 관점에서는 모든 소외계층에 대하여 기회균등과 평등을 제시하며 이는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도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와 평등을 의미한다. 오늘날 재활분야에서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가장 돋보이고 있다. 200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기회 균등을 각 국가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것은 성경에서 제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현대의 재활철학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장애 특성인 포괄성과 전체성에 대한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대전제로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넘어 장애인도 구원 사역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다. 오늘날 교회가 장애인의 예배 권리에 대하여 접근성과 환경을 보장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유로운 공동체 참여와 기회보장을 교회가 앞서 실천하도록 교회의 노력을 촉구하며 교회는 장애에 대한 재활을 실천하는데 있어 영적 기회보장은 물론 육신적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둘째, 기독교에서 장애에 대한 재활 관점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

서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성경은 약한 지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신다는 공동체의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재활공동체는 약한 지체를 요긴하게 사용하여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같이 재활에서는 중증장애인(severe disability)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거기에는 중증장애인들은 독립생활 패러다임(independent living paradigm)을 통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강렬히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공동체 속에 그들의 삶이 지지되어야 하고 교회에서부터 먼저 지지되어야 함을 말할 수 있다. 교리적 논리에서도 장애인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구속사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약자를 함께 아우르고 지지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셋째, 장애와 관련하여 성경이 제시하는 실천적 재활 담론은 재활전문가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마태복음 9장 2절-8절에서 중풍병자(뇌성마비장애)의 친구들이 지붕을 헐고 천장에서 침대를 내리어 예수를 만나게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예수가 그들의(재활전문가, 친구, 가족, 자원봉사자) 마음을 보시고 치료하시니 이는 기독교인들의 장애에 대한 배려와 봉사의 실천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현대에 와서는 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자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재활전문가를 통하여 장애인을 지지하고 자립으로 연결하는 직업재활사, 직업평가사, 재활상담사, 재활치료사 등 전문성을 가진 전공자들이 장애에 대하여 사회참여와 자립(독립)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재활전문가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부분이다.

넷째, 구약성경에서는 장애를 낙인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신약성경에서는 예수가 장애에 대하여 치유하는 구체적 흔적을 수 없이 볼 수 있다.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한 지체장애 걸인에게 취한 행위는 걸인의 정신적·육체적 치유를 통해 그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가게 하는 사건이다. 장애 걸인의 새로운 삶이란 이동의 자유와 하나님 복음의 메신저로 변화된 그의 모습이다. 이는 재활적 관점에서의 심리적·의료적 재활로 인한 그 장애인

의 변화된 모습과 삶의 가치를 논하고 있다. 걸인은 치유를 통해 동정에서 간증자로 변하게 되며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체계적인 의료, 심리, 교육, 직업, 사회 재활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이 주어지고 자유의지를 실현하게 되며, 멘토를 통한 학습, 개인의 역할 설정, 직업부여 등을 통해 장애로 단절된 삶을 이어주고 새 삶을 모색하는 것이 재활의 실천적 과제이며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한다.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요 사회의 문제이다. 모든 사람이 장애를 입지 않았을 뿐 언제라도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 무관심과 편견으로 교회에서도 차별을 당연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가 장애인들을 배제하고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다음은 어느 시각장애인의 고백이다(한영택, 2009).

교회에서 구제나 장학금 명목으로 많은 사람 앞에 세워져 발표하는 것을 볼 때면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들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섬세한 배려가 있어야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 도우는 것이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할 때가 있다.

또한 이렇게 고백한다.

교회생활 중 가장 불편하게 느꼈던 것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었다. 즉, 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 옆에

않지 않으려는 행동, 그리고 불쌍하게 보는 눈빛 등

재활의 이념은 인권회복이며, 인간의 잠재능력의 신뢰이다. 교회에서의 장애인사역은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를 선도하며 완성해 주어야 한다. 2005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97.8%인 약 210만 명 정도가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생활하며, 23.3%인 5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에 따르면 장애인 교회나 장애인 부서가 있는 교회는 현재 약 350개 내외로 5만 교회를 헤아리는 한국 교회에서 1%에 미치지 못한다. 이것이 장애인 선교의 현실이다.

장애인 사역의 준비는 장애인 사역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복음은 인종, 신분, 성별, 장애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때문에 능력의 한계를 이유로 장애인이 복음에서 차별받을 수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 또한 이것은 구호로서만 외쳐져서는 곤란하다. 실제 장애인의 삶에 있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 예수님은 직접 손을 대시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다. 장애인을 불쌍한 존재로 보면서 동정의 눈으로 구제의 대상으로만 여기시지 않으셨다. 우리의 과제는 복지적 차원을 뛰어 넘어 몇 몇 지원을 통한 독립된 생활로의 전환을 위해 힘써야 한다. 장애인들의 인권회복과 잠재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재활의 이념과 그 기술들을 접목시켜 그들이 주류사회로 자연스럽게 통합(inclusion)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장애인의 특성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을 낙인찍고 분류하고 통제하려고만 한다. 하나님 앞에 한 영혼도 귀하지 않은 영혼이 없는데 그들이 장애를 지녔다는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로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신장애가 있고 지적장애가 있다고 교회에서 포기하거나 거부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존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살핀다면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장애인도 동등한 복음의 대상이며, 동시에 복음사역자인 것이다. 동등한 인권으로서의 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인식의 변화와 공간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장애인의 예배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거기에는 재활적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만 한다. 재활의 이념과 영역, 접근방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한다면 장애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장애인에 대한 기독교적 소명은 완성될 것이다.

참고문헌

- 박혜전 (2003), 『노령 장애인의 직업재활욕구와 태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이재서 (2008), 『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 구약성경에 나타난 장애인관련구절분석』, 세계필알 9-49.
- 이승복 (2005), 『기적은 당신안에 있습니다』, 황금나침반
- 전용호 (2000, 『좋은 사회를 위한 장애인복지론』, 서울: 학문사.
- 정승원 (2009), 『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 장애인을 위한 언약공동체 신학』, 133-172.
- 최순진 (2009), 『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른 인간 창조 의미의 고찰』pp. 51-69.
- 한영택 (2009), 『결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고 싶다』 pp. 30-33. 월간고신 생명나무 4월호
- 합택 (2009), 『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 구약성서에 나타난 장애인해석에 관한 조망』 71-102.
- 나이토 토시히로 (1989), 『구약성서에서 본 장애인』 박천만·김경란 역, 한국장애인 진도협회

- Banja, J. D. (1990), Rehabilitation and Empowerment.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71, 614–615.
- Beck, R. (1994), Encouragement as a Vehicle to Empowerment in Counseling: An Existential Perspective. *Journal of Rehabilitation*, 60(3), 6–11.
- Bitter, J. A. (1970), 『Introduction to Rehabilitation』 St. Louis: Mosby.
- Curl, R., & Sheldon, J. (1992), Achieving Reasonable Choices: Balancing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Consumers with those of Rehabilitation Counselors. *Rehabilitation Education*, 6, 195–205.
- Davis, L. J. (2002), 『Bending over Backwards: Disability, Dismodernism & Other Difficult Position』(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41.
- David M., & Sharon S. (2007), 『Jesus Thrown Everything Off Balance』 in *Thisabled Body: Rethinking Disabilities in Biblical Studies*, ed. Hector Avalos, Sarah J. Melcher, and Jeremy Schipper (Atlanta, Ga.: 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183.
- Dejong, G. (1979), Independent Living: from Social Movement to Analytic Paradigm.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60, 435–446.
- Fritzson, A., & Kabue, S. (2004), 『Interpreting Disability』 A Church of All and for All(Geneva: WCC Publications).
- Hahn, H. (1986), Changing Perception of Disability and the Future of Rehabilitation. In L. G. Perlman & G. F. Austin (Eds.), *Social Influences on Rehabilitation Planning: Blueprint for the 21st Century* [A Report of the Ninth Mary E. Switzer Memorial Seminar] 53–64. Alexandria, VA: National Rehabilitation Association.
- Laski, F. J. (1985), Right to Habilitation and Right to Education: The Legal Foundation. In R. H. Bruininks & K. C. Lakin(Eds.), *Living and*

- Learning in th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67–79, Baltimore: Brookes.
- McGowan, J. F., & Poter, T. L. (1967), 『An Introduction to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cess』 Washington, D. C.: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 Nagi, S. Z. (1969),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Columbus, OH: Ohio State University Press.
- Nosek, M. A. (1988), Independent Living and Rehabilitation Counseling. In S. E. Rubin & N. M. Rubin (Eds.), *Contemporary Challenges to the Rehabilitation Counseling Profession*, 45–60, Baltimore: Brookes.
- Rubin, S. E., & Roessler, R. T. (1995), 『Foundations of the Vocational』
- Senior, D. (1995), 『Beware of the Canaanite Woman: Disability and the Bible』 in *Religion and Disability: Essays in Scripture, Theology and Ethics*, ed. Marilyn E. Bishop (Kansas City, Kan.: Sjeed & Ward, 5.
- Szymanski, E. M., Dunn, C., & Parker, R. M. (1989),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Learning Disabilities: An Ecological Framework.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33, 38–53.
- Wallis, J. (2005), *God Politics*, Harpercollins Publishers. Inc. 정성목 역 (2008), 『하나님의 정치』, 서울: 청림출판.
- Wehman, P., & Moon, M. S. (1988),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Supported Employment』 Baltimore, Maryland: Paul H. Brooks Publishing Co.
- Wehman, P. (1988), Support Employment: Toward Zero Ex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 Wehman & M. S. Moon (Eds.),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Supported Employment*, 3–14, Baltimore: Brookes.
- Weinberg, N., & Sebian, C. (1980), The Bible and Disability. *Rehab*

counseling Bulletin, 23(4), 273-281.

Wright, B. (Ed.). (1959), 『Psychology and Rehabilita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right, B. (1972), Value-laden Beliefs and Principles for Rehabilitation Psychologists. *Rehabilitation Psychology*, 19, 38-45.

Wright, B. (1983), *Physical Disability—A Psychosocial Approach*(2nd ed.). New York: Harper & Row.

UN장애인인권헌장 (1979, 2006), Section 902 Definition of the Term Disability.

미국고용기회균등위원회(The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홈페이지. <http://www.eeoc.gov/policy/docs/902cm.html>

Abstract

Christian calling for rehabilitation of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Hye Jeon Park(Kosin University)

Young Kil Cho(Kosin University)

This thesis is to do research on discovering Christian calling in the area of rehabilitation of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This researcher will attempt to show how the Scripture reveals the understanding of rehabilitation and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how rehabilitation makes impact upon the kind of gospel truth for them; and what the Christian calling must be for rehabilitation.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can be outlined as follows:

First, in the philosophy of rehabilitation all human beings are equal. The philosophy of rehabilitation seeks wholesome participation and equality of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All human beings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Once we realize the importance of souls as well as physical bodies of people, our attitude toward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must be changed.

Secondly, the paradigm of rehabilitation of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is being changed today. The issue of rehabilitation is not anymore that of personal sin or

individual lack of caution, but a matter of individual choice and personal determination in the lives of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The basic rights for them must be guaranteed and supported so that they can pursue their own purposes of lives. People must realize that, not simply by people's care and hands of compassion, but by professional skills and methods of rehabilitation, this issue of rehabilitation is to be dealt with. We need to realize that the ideal of rehabilitation must be based on their potentiality.

Thirdly, the rights of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must be guaranteed for the justice of social common good. This issue of guaranteeing basic rights cannot be dealt with mere proclamation but by practical solutions for every and each area of rehabilitation in greater depth: Medical, psycho-social, educational,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through which their return to society is made possible.

Fourthly, God loves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They are not the condemned, nor cursed because of their own sins, rather we can find in them God's marvelous providence. Physical handicap is not God's curse but the channel of God's blessing. We can also find how God wonderfully change their lives. Being a handicap can be a witness for God and an evangelist of the gospel message.

God's Kingdom is a community in which no one is ostracized. The kingdom that God will rule will never find person with disabilities to be a challenge. We must deal with reality of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by faith and by scholarship. In spite of pain and suffering,

we must realize that being person with disabilities is a vessel in God's hands, and precious instrument of God. Our attention must be given to seek common good of our society toward the minority and restoration of basic human rights. God never looks at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with pity only. God considers them as objects of salvation of their souls, and gave a pain of physical challenge so that they can carry out the task of gospel proclamation. We all live our lives with pain small or great. No one is truly free from the effects of pain of physical challenge. Seeking wholesome participation of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in society through psychological, social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through their reconciliation with God especially by prayer, through deep meditation on the meaning of physical challenge is toward the realization of God's Kingdom here on earth and completion of God's calling for rehabilitation.

Key words: Person with Disabilities, Rehabilitation, Christian Calling